

## 후기의병기 일본군의 사찰 탄압

Japanese Armys Oppression on Buddhist Temple in the Latter Period of the Righteous Armies  
Anti-Japanese Struggle

---

저자

(Authors)

Lee, Seung-yun

출처

(Source)

[한국근현대사연구 70](#), 2014.9, 70-96(27 pages)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70](#), 2014.9, 70-96(27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근현대사학회](#)

The Association for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79910>

APA Style

(2014). 후기의병기 일본군의 사찰 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70, 70-96

이용정보

(Accessed)

안동대학교

220.68.142.\*\*\*

2020/03/14 16:38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후기의병기 일본군의 사찰 탄압

李承允\*

1. 머리말
2. 의병 활동과 사찰
3. 일본군의 사찰 탄압
4. 맺음말

## 1. 머리말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혼란했던 사회분위기만큼이나 불교계도 급격한 변동을 겪었다. 일본 불교종파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1906년에는 명진학교 설립을 비롯하여 근대식 교육·포교제도가 도입되고, 1908년에는 전국의 승려대표들이 원흥사에 모여 종단적 성격을 가진 원종종무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일본 불교의 적극적인 포교가 계속되면서 한국 승려들이 사찰을 일본 종파의 말사로 편입시키려는 권리청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였다.<sup>1)</sup>

다른 한편으로 사찰에 대한 정부 관리와 양반들의 수탈은 여전히 계속되고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1) 이와 같은 변화상은 지금까지 근대불교사의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남도영, 「舊韓末의 明進學校-최초의 근대식 불교학교」, 《역사학보》 90, 1981; 김경집, 「근대 원종의 성립과 의의」, 《한국불교학》 29, 한국불교학회, 2001; 김경집, 「근대 원흥사의 창건과 시대적 의의」, 《회당학보》 7, 회당학회, 2002; 한동민, 「대한제국기 불교의 국가관리와 寺社管理署」, 《중앙사론》 25, 2007.

있었고, 이에 더하여 전국적으로 왕성하게 전개된 의병전쟁으로 불교계는 이중고를 겪었다. 1907년 8월 이래 의병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산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전국의 사찰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sup>2)</sup>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군에 의한 피해이다. 일본군은 의병이 머물다간 사찰을 방화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각이 소실되고 불상을 포함한 문화재가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승려들의 현실인식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당시 전국적으로 말사청원이 유행한 것도 이러한 정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의 사찰 탄압과 그로 인한 피해를 고증하는 것은 당시 불교계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그러나 1907년 이후 사찰의 피해상황이나 일제의 사찰 탄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부 연구에서 용문사·심원사를 포함한 몇몇 사찰이 일제에 의해 소실되었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으나, 그 실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는 미진하다.<sup>3)</sup> 일본군의 의병탄압에 대해서도 그 정책과 주체의 변화를 주목하거나<sup>4)</sup> 진압과정에서 자행한 학살·방화를 중점적으로 다

2) 1908년 6월 조동종 관장 이시카와[石川素童]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통감부에 청원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승려들을 위해 대신 제출한다는 청원서에는 당시 한국 사찰들이 의병과 일본군의 전쟁과정에서 양측으로부터 수탈당하고 파괴당했던 곤란한 상황이 표현되고 있다. 청원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사원이 폭도가 잠시 와서 쉬는 곳이 되었으나 거절하거나 꺾을만한 실력은 없다. 그러나 일본군은 그 사원이 마치 폭도와 통하는 것이라 의심하여 토벌할 때에 당우를 파괴하고 재산에 재해를 입히는데 터럭만큼도 너그러움이 없다. 둘째, 사원에는 일본군대가 둔영을 삼아 편리함을 도모하는 것이 폭도의 원한을 자초한다. 고로 일본군대가 퇴산하면 폭도가 기회를 엿보다가 파괴·약탈하여 그 사원에 복수한다. 셋째, 나라일이 많아 바쁠 때에 한국 지방 토호들이 이익을 위해 온갖 명의를 붙여 마음대로 사원의 재산을 압령하는 일이 종종 있다.”(「한국 사원 재산보호에 관한 특별청원」, 『종교에 관한 잡진철』(1906~1909).

3)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한동민, 「사찰령 체제하 본산 제도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4) 이구용, 「한말의병항쟁에 대한 고찰—의병진압의 단계적 수합대책」, 《국사관논총》 23, 1991; 홍영기, 「1907~1908년 일제의 자위단 조직과 한국인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3, 1995; 신주백, 「호남의병에 대한 일본군·헌병·경찰의

론 연구가 다소 이루어졌다.<sup>5)</sup> 이상의 연구에서 전국의 많은 사찰이 의병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소각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언급하는 바이나, 사찰 탄압은 주요한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찰 탄압이 본격적으로 자행된 후기의병기를 중심으로, 의병이 사찰에 주둔하였던 상황과 이에 대한 일본군의 사찰 탄압상을 사찰 소각과 봉쇄라는 차원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시 불교계가 처했던 현실적 상황을 규명하고 나아가 근대 불교계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의병 활동과 사찰

한말의 의병들이 사찰을 이용한 것은 전기의병기부터였다. 안동의병의 경우 의진의 본부역할을 한 것은 호계서원이었지만, 그 산실이 된 것은 鳳停寺이다. 단발령과 을미사변의 소식이 전해진 후 1896년 1월 17일 인근의 유림 40여 명이 봉정사에 모여 거의 날짜와 방법 등을 합의함으로써 안동의병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sup>6)</sup> 인근의 청량산 淸涼寺에서도 1896년 김도현과 유시연이 영양의진을 일으켰다.<sup>7)</sup>

중기의병 때에도 奇參衍이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킨 후 고창 文殊寺를 거점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대극이 군사 수백여 명을 이끌고 문수사로 가서 기삼연을 맹주로 삼은 일이나 김용구가 그를 만나기 위해 문수사에 갔다는 기록을 통해 오랜 기간 기삼연이 문수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8)</sup> 태인의

강압작전, 《역사교육》 87, 2003; 이용창, 「일진회와 자위단의 의병사상」, 《내일을 여는 역사》 30, 서해문집, 2007; 김상기,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4, 2013.

- 5) 홍순권, 「의병학살의 참상과 ‘남한대토벌」, 《역사비평》 45, 1998; 홍순권, 「한말 일본군의 의병학살」, 《제노사이드연구》 3,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8.
- 6) 김희근,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93쪽.
- 7) 「백산선생창의전말」,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19쪽;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29쪽.

병을 주도한 崔益鉉도 거병을 하기 전인 1906년 5월 30일 담양 龍湫寺에 있는 壽宇萬과 호남 유림 50여 명과 회동하였다. 이 자리에서 전남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격문」과 의병에 동참하기로 한 지사들의 연명부인 「동맹록」을 작성하였다. 태인의병의 봉기는 무성서원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준비는 용추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9)</sup> 또 이들은 백양산 內藏寺와 순창 龜巖寺 등에 머물며 포수들을 규합하거나 훈련을 하기도 했다.

1907년 이후로 의병들의 사찰이용은 더욱 빈번해졌다. 李康季의 경우 1907년 3월 이래 鳳服寺·鳴鳳寺·金龍寺·大乘寺·古晉寺·旁杜寺 등에 머물렀다. 이듬해에는 百潭寺·五歲庵·神興寺 등에 留陣하며 군사훈련을 하거나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다.<sup>10)</sup> 奎海山의 경우에도 海佛庵·實相寺·來蘇寺·龍泉寺·佛甲寺·仙雲寺 등지로 옮겨 다닌 내용을 「진중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11)</sup>

이렇게 의병들이 사찰을 근거지로 활동한 것은 사찰의 입지 조건에서 기인한다. 대개 우리나라의 사찰은 깊은 산 속에 위치하여 은둔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일본군의 공격에 대처하기도 용이하다. 산과 계곡이 많은 지형적 특성은 의병에게는 유리했지만, 향토지리에 밝지 않은 일본군에게는 불리했다. 또한 산의 높은 곳에 초소를 설치하여 일본 군경의 움직임은 미리 탐지할 수 있어 일본군의 공격이 있을 때 언제든지 산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었다.

1907년 이후 의병이 유격전술을 구사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찰은 좀 더 빈번하게 활용되었다. 주로 의병들은 낮에는 산이나 계곡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어 이동하거나 공격하는 식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전술의 변화는 일본 측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묘히 지형을 이용하여 기습을 행하고 그 집산이합의 형세가 진보한 것 같다”<sup>12)</sup>는 일본 군경의 평가와 같이 의병들은 소규모 부대로 나누어 주로 산악을 무대로 활동하였고, 그 가운데 사찰은 훌륭한 근거지가 되었다.

8) 「의소일기」, 『독립운동사자료집』 2, 691쪽.

9) 「면암선생장의전말」, 『독립운동사자료집』 2, 65~75쪽; 박민영, 『한말 중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112~115쪽.

10) 「운강선생장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2.

11) 「전해산진중일기」, 『독립운동사자료집』 2.

12) 『한국독립운동사』 12, 1983, 345쪽.

사찰은 인적이 많지 않은 산악 안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였다. 燕谷寺를 비롯한 지리산 일대를 장기항전의 근거지로 주목한 高光洵을 통해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고광순은 산세가 깊어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일본군이 공격해오면 산을 넘어 문수암으로 피신할 수도 있고, 나아가 산 밑 화개동에 산포수가 많은 점을 들어 연곡사를 근거지로 정했다.<sup>13)</sup> 『택리지』에도 “지리산은 흙이 두텁고 기름져서 온 산이 모두 사람살기에 알맞다. 산 안에 백리나 되는 긴 골짜기가 있어 바깥쪽은 좁으나 안은 넓어서 가끔 사람이 발견되지 못한 곳도 있다”<sup>14)</sup>라고 언급되어 있다. 즉 지리산은 군사가 오래도록 머무를 만한 물자가 풍부하면서도 일본군을 피해 은신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다.

의병들은 지역을 옮겨가며 일본군의 공격을 피하기도 했지만, 단일한 산악의 동서남북에 자리 잡은 여러 개의 사찰 안에서 필요에 따라 옮겨가며 의진을 유지하였다. 고광순은 지리산 내 연곡사를 주요한 근거지로 삼고 인근의 七佛庵·文殊庵·土窟寺로 옮겨 다니며 일본군의 공격에 대응하였고, 용문산 내 舍那寺·上院庵·龍門寺가 모두 방화피해를 입은 것도 의병의 행동패턴과 관련이 있다. 순천 조계산 일대를 수색한 일본군은 이러한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 즉 조계산 일대에 松廣寺·仙巖寺·雙磎寺 등 규모가 큰 사찰이 3개가 있는데 모두 촌락과 멀리 떨어져 고립되어 있어 일본군이 이 일대를 여러 번 수색하였으나 험악한 지형상 뒤쫓아 따라잡기 힘들고, 의병이 도주한 후에야 도착할 수 있어 그들의 기선을 제압할 수가 없다고 토로하였다.<sup>15)</sup>

1907년 8월 영광에서 의병을 일으킨 金容球도 쌍계사·문수사·연곡사·칠불사·백양사·선운사 등지를 자주 옮겨 다녔는데, 그 이유로는 병기의 차이와 군사모집을 들었다.<sup>16)</sup> 즉 의병들은 훈련이 되어있지 않고 무기도 보잘것없어 최신식

13) 『삼의사행장』, 『독립운동사자료집』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281·287·288·296쪽.

14) 이증환, 『택리지』, 이익성 옮김, 을유문화사, 1993, 161쪽.

15)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국사편찬위원회, 1980, 211쪽. 쌍계사는 본래 지리산에 소재한 사찰이지만, 일본 측 보고서에 조계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의병의 주요 활동지로 함께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서술하였다.

16) “우리 군사가 비록 백여 명이라고는 하지만 본래 훈련이 없고 또 병기가 날카롭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과 직접 대결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곳을 순회하며 군사를 모으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판단하였다.

의병들은 사찰에 머물면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개 사찰에 머물며 召募활동을 하였다. 사찰 주변의 산악에는 사냥을 주업으로 하는 산포수가 많아 이들을 의병으로 포섭하기에 용이했다. 특히 1907년 9월 3일 일제가 발표한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은 산포수들이 대거 의병에 합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수렵을 생계수단으로 삼던 산포수들이 일제의 강제적인 총기 회수에 반발하여 의병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산포수로 구성된 의병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지역은 함경도이다. 이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는 불리하고 험준한 산악지대가 발달하여 주민 중 상당수가 산짐승 사냥을 생업으로 하는 직업적 산포수였다. 이들은 일제가 의병을 무력화하기 위해 공포한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으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車道善·洪範圖를 중심으로 봉기하여 치열한 항일항쟁을 벌였다.<sup>17)</sup>

강원도나 경북 북부지역과 같이 산악이 발달한 지역에서도 사냥을 본업 혹은 부업으로 하는 산포수가 많았다. 함경도와 같이 산포수가 주도하는 의병은 아니지만, 1907년 9월 이후 많은 산포수들이 의병 활동에 투신하였다. 閔肯鏞의 휘하에 있던 吳敬默<sup>18)</sup>은 본래 횡성 수순교 겸 포수계장이었는데, 1907년 8월 횡성군 鳳腹寺에서 수렵하던 중 민궁호의진에 투신하였다.<sup>19)</sup> 오경묵이 봉복사에 간 이유가 민궁호의진에 합류하기 위해 간 것인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sup>20)</sup> 다만 분명한 것은 사찰과 산악이 우수한 기동력과 무기

---

지 못한테 저 적들은 병기가 精利하니 실로 당하기 어려운 즉 차라리 자주자주 진을 옮기는 이만 못할 것입니다. 그런즉 潭陽·長城·高敞·靈光 등지로부터 남북 쪽 각 군을 순회해서 원근에 있는 지사와 힘센 군사들이 바람을 따르듯 좇아 마음을 합쳐 힘을 같이하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가 합니다”(『의소일기』, 690쪽).

- 17) 산포수 의병에 대해서는 박민영, 『대한제국기 의병연구』, 한울아카데미, 1998을 참조.
- 18) 강원도 횡성 출신으로 횡성 관아 수순교 겸 포수계장이었다가 1907년 음력 8월에 포수 20명을 인솔하고 횡성군 봉복사에서 민궁호를 만나 투신하였다.
- 19) 『독립운동사자료집』 3, 598~599쪽.
- 20) 이후 오경묵은 1908년 4월 6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귀순하였다. 때문에 ‘권유에 못 이겨’ 의병에 투신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투신이 이루어진 시기가 당시 정황

를 갖춘 의병부대원, 즉 산포수를 모집하기에 유리한 장소였다는 점이다. 지리산 연곡사에 거점을 둔 고광순도 인근 화개동에 산포수가 많다는 점을 지리산의 이점으로 꼽은 바 있다.<sup>21)</sup> 따라서 의병들이 사찰을 이용하는 것은 실력 있는 부대원을 포섭할 목적도 함께 작용한 것이다.

이 밖에 의병들은 사찰에서 무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기도 했다. 무기의 확보는 당시 의병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다. 군기고를 공격하거나 밀수 등을 통해 무기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의병들은 직접 무기를 제작하려고 하였다. 물론 하루 이틀씩 머물다 지나가는 사찰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지리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몇몇 의병들은 장기간 사찰에 머물면서 무기나 화약을 제조하였다. 총을 만드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화승총을 개조하거나 총대를 제조했고, 화약과 탄환 등을 직접 제작하였다. 고광순도 연곡사에 유진할 때 대장장이 2명으로 하여금 도검을 제조하게 하였고,<sup>22)</sup> 지리산 鳳院庵에서는 화승총을 개조하거나 총상을 제조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sup>23)</sup> 전라도 장성·정읍 일대에서 활동하던 金永伯 의병도 내장사 부근에 무기제조소를 운영하였고, 완도 片風庵에서도 의병들이 총기 및 화약을 제조하였다고 한다.<sup>24)</sup>

---

상 오경목이 포수 20명을 이끌고 자발적으로 민공회의진에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 21) “8월 11일에 행군하여 求禮 燕谷寺에 당도하니 산은 막히고 골짜기는 깊으며 동으로 花開洞과 통하여 그 동리에는 산포수가 많고 북으로 文殊庵과 통하여 그 암지는 바로 天險에 해당하므로 연곡을 웅거하여 중심지로 삼고 장차 문수암을 끌어당기며 화개동을 무마해서 군사를 머무르고 예기를 기를 계획을 했다. 그래서 軍旗를 세우고 기에는 멀지 않아서 회복한다는 뜻으로 ‘不遠復’ 3글자를 썼다”(『삼의사행장』, 281~288·296쪽).
- 22)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3,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0, 85~87쪽.
- 23)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9, 52쪽.
- 24)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4, 102쪽; 『한국독립운동사자료』 15, 580쪽.



### 3. 일본군의 사찰 탄압

#### 1) 사찰 소각

1907년 8월 군대해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하자 일제는 토벌적 탄압으로 대응하였다. 1907년 9월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는 “비도에 투신하거나 또는 그것을 은폐시키고 혹은 흉기를 장낙하는 자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뿐 아니라, 그 책임을 현행범의 촌읍에 돌려 부락 전체를 엄중하게 처치할 것”이라고 고시하고 일반 촌락에 대해 학살과 방화를 자행하였다.<sup>25)</sup> 의병의 유격전술과 주민들의 협조로 의병 진압에 어려움을 느낀 일제가 이른바 초토적 전술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07년 7월부터 1908년 말까지 일제가 방화한 민가만 해도 6,681호에 달하였다.<sup>26)</sup> 대표적인 예로 충북 제천은 1907년 8월 23일 일본군에 의해 초토화되었고,<sup>27)</sup> 같은 날 경기도 여주 일대의 마을도 불바다가 되었다.

이러한 방화는 일반 민가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찰 역시 의병이 주둔하였다 하여 방화의 대상이 되었다. 일제는 의병부대가 사찰에 머물다가거나 의병들에게 도움을 준 것을 문제 삼아 사찰을 소각하였다. 보복적 차원에서 행해진 일이지만, 해당 사찰이 다시는 의병의 근거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의 목적도 작용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다수 발견되는데, 가장 먼저 확인되는 사례는 경기도 내 南漢山城의 사찰들이다. 제천이 불바다가 되기 하루 전인 1907년 8월 22일 일본군은 남한산성을 폭파하고, 성내 사찰을 파괴하였다. 당시 남한산성 안에는 望月寺·玉井寺·漢興寺·國淸寺·開元寺·長慶寺·天柱寺·東林寺·靈源寺의 9개 사찰이 있었다. 남한산성은 수도방어를 담당하는 군사적 요지로, 견고하게 쌓은 성벽은 방어에 유리하고 성내에는 糧米·軍器·火藥 등 군수물자도

25) 『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3, 671~672쪽.

26) 『독립운동사』(의병항쟁사) 1, 524~526쪽.

27) 이곳을 방문한 맥켄지는 『한국의 독립운동』, 『한국의 비극』 등을 통해 그 참상을 소개하였다.

풍부하였다.<sup>28)</sup> 이러한 이점으로 전기의병 때도 沈鑣元의 광주의병과 金河洛의 이천의병, 李承龍의 양근의병까지 합세한 연합의진이 남한산성을 점령하여 약 한 달간 항전한 바 있다.<sup>29)</sup> 1907년 의병의 기세가 거세지자 일본군은 남한산성이 다시 의병의 근거지가 될 것을 우려하였다.<sup>30)</sup> 일제는 8월 22일 남한산성에 기병대를 파견하여 산성 내의 무기를 압수하고 화약고 및 무기고를 폭파시켰다.<sup>31)</sup> 폭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개원사를 포함한 8개 사찰이 전소되었고 장경사만이 겨우 전소를 면하였다.<sup>32)</sup>

또한 8월 24일에는 경기도 양평 용문산 내 龍門寺와 上院庵이 소실되었다. 당시 용문산에서는 曹仁煥·權得洙의진이 활동하고 있었다.<sup>33)</sup> 이에 일본군은

28) 산성에는 400여 명의 승군들이 주둔하며 수도 외곽 방위를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산성 내 곡식과 군기, 화약을 관리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 산성 내에 지어진 9개의 사찰도 승군의 주둔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 갑오개혁으로 승군제가 폐지되면서 사찰은 자연스럽게 쇠락하고 있었다.

29) 김상기, 『한말 전기의병』, 127~128쪽; 당시 남한산성에 주둔하였던 김하락은 아래와 같이 남한산성의 입지에 대해 극찬하였다(『김하락 진중일지』, 『독립운동 사자료집』 3, 591쪽).

“사방 산이 깎아지른 듯이 솟고 성첩이 견고하여 한 사람이 관문을 지키면 만 명이라도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다. 성중을 두루 살펴보니 쌓인 곡식이 산더미 같고 식염이 수백 석에 달하고 무기도 구비되어 대환기가 수십 자루, 천자포·지학포도 역시 수십 자루, 천보총이 수백 자루였고, 나머지 조총도 수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며 탄약 철환이 산더미 같았다. 여러 장수들은 군용이 유여한데다 진칠 곳마저 견고하여 몹시 기뻐하였다.”

30) 8월 14일 광주 경안면에서 한 무리의 의병들이 집합하여 광주성을 공격·점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대한매일신보》 1907년 8월 18일자, 『의병소식』).

31) 『(명치 40년 8월 22일) 117. 龍仁에서의 暴徒로 인한 日本人被殺事件 및 淸風, 堤川討伐計劃等 報告』, 『통감부문서』 4, 국사편찬위원회, 1999, 89쪽.

32) 장경사는 개원사의 누각을 이긴 후 겨우 사세를 유지하였으며, 1943년 법당을 증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면 남단사·동림사·천주사 등은 여전히 복원되지 못하고 폐허로 남아 있다(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사지총람』 상, 문화재청, 2010, 75~80쪽; 권상로, 『한국사찰사전』 하, 이화문화출판부, 1994, 245~246쪽).

33) 양평의병에 대해서는 김상기, 『한말 양평에서의 의병항쟁과 의병장』, 《호서사학》 37, 2004 및 홍영기, 『양평지역의 후기의병』, 『한말 양평의병의 전개와 성역화 기본계획』, 2003을 참조. 이들 논문에도 용문산 일대 사찰에 대한 소각 사실이

<표 1> 1907년 소각된 사찰<sup>38)</sup>

연번	소각날짜	사찰명	소재지	관련의병	진압부대
1	1907.8.22.	망월사 외 8개	경기 광주		
2	1907.8.24.	용문사·상원암	경기 양평	조인환·권득수	보병 제52연대 제9중대
3	1907.9.3.	각화사	경북 봉화	민공호	日大楠 분대
4	1907.9.23.	봉복사	강원 횡성	민공호	원주수비대
5	1907.9.28.	신륵사	경기 여주		
6	1907.9.	청계사	경북 상주	노병대	보병 제47연대 제9중대
7	1907.10.4.	안국사	경북 포항	정용기	청송·영일수비대
8	1907.10.14.	문수암	전남 구례	김동신	
9	1907.10.17.	심원사	강원 철원	왕희중	보병 제50연대 제8중대
10	1907.10.17.	연곡사	전남 구례	고광순	광주수비대·진해만 요새 포병대
11	1907.10.27.	사나사	경기 양평		보병 제51연대 제11중대
12	1907.11.14.	영원사	경기 동두천	허위	
13	1907.11.	환장사	충북 괴산		
14	1907.11.	정혜사	충남 청양		
15	1907.	비로사	경북 영주		
16	1907.	봉암사	경북 문경		
17	1907.	삼화사	강원 삼척		
18	1907.	영각사	경남 함양	문태서	
19	1907(추정)	천주사 <sup>39)</sup>	경북 문경		
20	1907(추정)	법평사	경북 포항	산남의진	
21	1907(추정)	비상사	경북 영천	산남의진	

1907년 8월 8일 250여 명의 병력을 파견한데 이어 18일에도 증원병을 추가 파견하였고, 23일 상원사·용문사에서 의병의 동태를 확인한 후 24~25일에

기술되어 있다.

걸쳐 ‘토벌’을 단행하였다. 당시 절에 머물고 있던 의병 대부분은 미리 몸을 피했지만 50여 명의 의병이 희생되었으며, 일본군은 의병이 비축해놓은 다량의 식량과 함께 상원암·용문사를 불태워버렸다.<sup>34)</sup>

이후 일본군의 사찰 방화는 계속되어 9월에는 민공호의진의 활동과 관련된 覺華寺<sup>35)</sup>와 鳳腹寺<sup>36)</sup>를 포함하여 4개의 사찰이 소각되었다. 10월에는 安國寺·深源寺·연곡사를 포함한 5개 사찰이 소실되었고, 11월 중에는 靈源寺<sup>37)</sup>를 포함한 3개의 사찰이 소실되었다. 피해시기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1907년 일본군의 방화로 소각된 사찰은 총 30개소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현재까지 확인되는 36개의 소실사찰 중 30개, 약 83%가 1907년에 피해를 입었다. 한국군 해산 이후 일제가 강경한 탄압정책을 추진하면서 1907년에 집중적인 사찰 방화가 단행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8월부터 11월 중에 피해를 입었고, 1907년 12월 이후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1908년 봄까지 이어졌다. 즉 1907~1908년 사이의 겨울에는 일본군의 사찰 방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병들의 활동시기와 관계가 있다. 겨울철에는 혹한을 피해 귀기하는 의병들이 많아져 의병 활동이 다소 침체되는 경향이 있다.<sup>40)</sup> 이에 따라 일본군의 진압방식도

- 
- 34) 김상기 편역, 『한말의병자료』 IV,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58~59쪽 및 「부록-한국폭도봉기의 건」,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 985~986쪽.
- 35)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각화산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인 고운사의 말사이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0일자, 「지방정형」.
- 36)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덕고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의 말사이다. 「조선폭도토벌지」, 『독립운동사자료집』 3, 694~697쪽; 『독립운동사』 1, 1970, 567~570쪽; 신용하, 「민공호 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0, 70~71쪽에도 봉복사 전투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 37)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소요산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이다. 1909년 性坡와 제암이 중창한 후 자제암이라 개칭하였다.
- 38)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경북일보>; 『폭도에 관한 편책』, 「(1907. 12.15) 시국에 관한 상황—철원군과 부근」; 「조선폭도토벌지」(『독립운동사자료집』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봉선사본말사지」·「유점사본말사지」(한국학문헌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77); 경상남도 산청군, 「내 고장 산청-산청군」,

변화하여 회유 위주의 다소 온건한 정책이 추진되었다.<sup>41)</sup> 이에 따라 1907년 12월~1908년 3월 무렵까지는 사찰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반면 1908년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의병 활동이 다시 활기를 띤다. 이에 따라 통감부의 방침도 점차 강경책으로 회귀하게 되며,<sup>42)</sup> 일본군의 사찰 방화도 1908년 봄에 재개되었다. 특히 1908년에는 호남 지역의 의병 활동이 부각되는데, 이때 소실된 사찰도 대개 전라도에 소재한 경우가 많았다. 1908년 이후의 피해사례는 <표 2>와 같다.

<표 2> 1908년 이후 소각 사찰<sup>43)</sup>

연번	시기	사찰명	소재지	관련의병	도벌부대
1	1908.4.8	(송광사) 은적암·보조암	전남 순천		
2	1908.5.30	용흥사	전남 담양	유병기	광주경찰서

산청군, 1982; 『산남의진정대장영세출신충효동사적비』(경북 영천시 자양면 충효리 636소재, 1988년 건립); 권상로, 『한국사찰사전』, 이화문화출판부, 1994; 관동대학교 영동문화연구소, 『동해시사』, 동해시, 2000; 김상기 편역, 『한말의병자료』 IV,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문화재청·불교문화재단연구소, 『한국사지총람』 하, 문화재청, 2010;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010.

- 39) 『문경지』(문경시, 2002)에는 천주사가 1906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문경에서는 의병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변 사찰들의 피해시기도 1907년인 점을 미루어 1907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40) 『독립운동사』 1권에 정리된 1907년 8월~1911년 6월까지 일본군경과 격전한 의병수를 보면 1907년 11월 최고조에 달한 의병 수가 12월 이래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이듬해 5월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1907년 10월부터 1908년 5월까지의 의병 수만 제시한다(『독립운동사』 1, 529~531쪽).

연월	1907년			1908년				
	10	11	12	1	2	3	4	5
격전의병 수	5,212	15,115	9,787	9,007	5,934	6,466	7,581	11,394

- 41)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261~262쪽; 《대한매일신보》 1908년 5월 6일자, 『진압책 변경』.
- 42)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262쪽.

3	1908.	월명암	전북 부안		
4	1908.	상이암	전북 임실	이석용	
5	1908.	법계사	경남 산청	박동의	
6	1909.7.8	(대흥사) 심적암	전남 해남	황준성	해남수비대

1908년 이래로 6개의 사찰이 확인되는데,<sup>44)</sup> 대부분 1908년에 소실 피해를 입었다. 한편 1909년 7월 8일 大興寺 深寂庵이 해남수비대에 의해 소실·파괴된 것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각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상의 사찰을 지역별·시기별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피해사찰의 지역별·시기별 분포

지역 \ 시기	1907년	1908년	1909년 이후	계
경기	14	-	-	14
강원	3	-	-	3
충북	1	-	-	1
충남	1	-	-	1
경북	8	-	-	8
경남	1	1	-	2
전북	-	2	-	2
전남	2	2	1	5
계	30	5	1	36

실제로 일제의 사찰 소각이 집중된 시점은 1907년이다. 전체 36개소 중

43) 『폭도에 관한 편찬』, 『(1908.6.9) 창평군 장북면 용흥사에서 토벌 후의 상보』; 『의소일기』; 『정재이석용창의일록』; 『전해산진중일기』(『독립운동사자료집』 2); 『삼의사행장』; 『조선폭도토벌지』(『독립운동사자료집』 3); 권상로, 『한국사찰사전』 상, 이화문화출판부, 1994; 사찰문화연구원, 『전북의 전통사찰』 2, 1997; 해남향토문화연구회, 『대둔사의 역사와 문화』, 1998;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010; 『두산백과』.

44) 은적암과 보조암은 조계산에 소재한 송광사의 산내암자이기에 하나의 사찰로 간주하였다.

30개가 1907년에 집중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의 사례가 가장 많았다. 남한산성 내 9개 사찰을 포함하여 총 14개 사찰이 일본군에 의해 소각되었다. 경기도는 한국군 해산 직후 가장 왕성한 의병 활동을 보였으며, 서울진공작전을 비롯한 연합의진의 형성이 두드러진 지역이다. 경기지역의 의병은 대개 3개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양평·여주·광주·이천을 아우르는 남동부지역과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임진강을 중심으로 황해도·강원도 서부까지 연결되는 동북부 지역이다.<sup>45)</sup> 이 중 사찰의 소실 피해가 확인되는 곳은 남동부와 북동부 지역이다. 남동부지역에서는 남한산성 내 9개 사찰과 용문산 일대의 사찰 3개소, 神勅寺가 방화피해를 입었고, 북동부 지역에서는 동두천 영원사가 소각되었다.<sup>46)</sup> 경기도는 후기의병 초기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인 지역으로 사찰의 방화시기도 1907년 8~9월에 집중되어 있다.

두 번째로 피해사례가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이다. 총 8개의 사찰이 소각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경북 북부지역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충청북도·강원도의 경계인 소백산맥을 따라 피해사찰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일대에서 일제가 방화·소각한 사찰은 태백산 각화사, 소백산 毘盧寺, 문경 天柱寺 및 鳳巖寺, 상주 淸溪寺의 5개소이다. 이처럼 경북 북부지역에서 사찰 소각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탁월한 지리적 조건으로 의병의 주둔이 빈번하였기 때문이다. 이곳은 속리산·월악산·소백산·태백산으로 이어지는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의병이 유격전을 하기에 유리할 뿐 아니라 전기의병 이래로 강한 항일의식이 이어지는 지역으로 일찍부터 이강년·민궁호·신돌석 등 걸출한 의병들의 활동무대가 되어 왔던 것이다.

소실 사찰 중 태백산 각화사와 청계사의 경우는 의병장을 확인할 수 있다. 태백산 각화사는 민궁호의진과 관련되어 소각되었다. 1907년 9월 2일 민궁호<sup>47)</sup>

45)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1904~19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46) 당시 경기 북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진은 허위와 연기우의 부대였는데, 이들은 강원도 철원 보개산을 근거지로 하였고, 이에 따라 심원사도 1907년 10월 17일 보병 제50연대 제8중대의 기습으로 소각되었다.

47) 기사에는 閔永鎬라 되어 있으나 이것은 誤記이다. 또한 소규모 분대로 나누어 유격전을 전개하는 민궁호부대의 특성상(신용하, 『민궁호의병부대의 항일무장

가 이끄는 의병부대가 일본 니시오카(西岡) 중대와 교전하여 승리한 직후 각화사 부근에서 군량과 의병부대원을 모집하고 있었다. 이어 3일에는 승려와 일행 200여 명, 韓兵 100여 명이 日大楠 분대와 각화사에서 수 시간 동안 전투하였다. 이후 의병은 태백산 방면으로 퇴각하고 일본군은 승려와 의병이 합세할 것을 우려해 각화사의 道成庵, 洛西庵,<sup>48)</sup> 東庵 등을 방화하였다.<sup>49)</sup> 청계사<sup>50)</sup>는 盧柄大의 활동근거지로 알려져 있다. 노병대는 1907년 7월 13일 속리산에서 거의하여 충청북도와 경상북도를 오가며 활동하였다. 1907년 9월 중순 일본군은 경상북도 일대에 대한 소위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9월 13일 대전 보병 47연대장 마타메(生田目) 중좌가 이끄는 제5중대가 청계사를 습격하였다.<sup>51)</sup> 상주군 화서면 산성리의 인가 20여 호와 청계사를 ‘의도의 주점소’라 하여 불을 질러 사찰 50여 칸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고 한다.<sup>52)</sup>

또한 경북 영천·청송·영덕·포항 등 남동부에서도 안국사를 포함한 3개의 사찰이 소실되었다. 이 지역은 1906년 3월부터 1908년 7월까지 鄭鏞基·鄭煥直·崔世允으로 이어지는 山南義陣이 활동한 곳이었다.<sup>53)</sup> 청송수비대를 위시한 일본군은 산남의진에 대한 추격·탄압 과정에서 정용기의 집이 있는 영천 검단리와 영일 입암리를 초토화시켰다.<sup>54)</sup> 또한 안국사<sup>55)</sup>와 보현산 비상사, 비학산

투쟁], 64쪽) 민공호의진의 소부대일 가능성이 있다.

- 48) 신문기사에는 落寺庵이라고 되어 있으나 《동아일보》 1927년 2월 9일자 기사를 통해 洛西庵이 옳은 표기이며, 모두 각화사에 소속된 암자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중 동암만이 복건되었다(《동아일보》 1927년 2월 9일자, 「향토예찬 내 고을 명물」).
- 49)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0일자, 「지방정형」; 각화사와 태백산사고가 소실된 시기는 1910년 혹은 1913년으로 추정될 뿐 그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본 기사를 통해 각화사 소실된 시기가 1907년 9월 3일임을 확인하였다.
- 50)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하송리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본사 직지사의 말사이다.
- 51) 「조선폭도토벌지」, 697~699쪽;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 96쪽.
- 52) 《황성신문》 1907년 11월 21일자, 「義徒에 수집」.
- 53) 산남의진에 대한 연구로는 배용일, 「산남의진고」, 《논문집》 6, 포항실업전문대학, 1982; 권영배, 「산남의진(1906~1908)의 조직과 활동」, 《역사교육논집》 16, 역사교육학회, 1991 등이 있다.
- 54) 정호용, 「산남창의지」 하, 51·171쪽; 권영배, 「산남의진의 조직과 활동」, 147~148쪽.



法廣寺를 소각하였다. 단일의진과 관련해 가장 많은 수의 사찰이 피해를 본 사례이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주로 1908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라도는 1908년 이후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의병 활동이 전개된 지역이었다.<sup>56)</sup> 기삼연의 湖南倡義會盟所와 전해산의 大同倡義團, 李錫庸의 湖南倡義同盟團을 포함하여 고광순·沈南一·安圭洪·文泰瑞 등 수많은 의병들이 활약하였다. 때문에 일제의 탄압 역시 호남지역에 집중되었다.

상대적으로 충남·충북·경남 지역의 피해사례는 많지 않다. 후기의병 당시 이 지역의 의병 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정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전라도와 인접하거나 지리산 부근 사찰에서만 2개의 소각사례가 확인될 뿐이다. 북한지역의 피해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소실 피해는 남한지역에서 발견된다. 이는 남한지역에서 더욱 활발하게 의병 활동이 이루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sup>57)</sup> 자료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사실상 일본 측 자료를 통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며, 증언이나 해방 후 문헌 등 2차 자료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까지의 공개자료에서는 북한 내 사찰의 피해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sup>58)</sup>

일본군의 사찰 소각은 단일한 산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지리산에서는 연곡사·문수암·법계사가 일본군에 의해 소각되었는데, 그 중 연곡사와 문수암의 소실시기가 각각 10월 14일과 10월 17일로 연달아 있다.<sup>59)</sup> 또한 용문산 내 사찰 3개 중 2개가 같은 날 소각되었다. 의병들의 행동패턴

55) 안국사는 경북 포항시 기계면 운주산에 있던 사찰이다. 1907년 파괴된 이후 현재까지 절터로 남아있다.

56)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1908년 전라도 의병은 일본군경과의 교전횟수와 교전 의병 수에서 전국 대비 25%와 24.7%를, 1909년에는 46.6%와 59.9%를 차지한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1, 1965, 295~296쪽).

57) 1908년 교전횟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북한지역, 즉 황해·평안·함경도에서의 수치는 전체의 24.9%에 불과하다(『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295~296쪽).

58)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이 필요하다.

59) 문수암의 소실 시기는 『삼의사행장』의 번역본(『독립운동사자료집』 3)에 9월 18일(양력 10월 24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도 9월 18일로 잘못

이 하나의 산악 안에 여러 개의 거점을 두고 일본군의 공격을 피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일본군의 사찰 소각도 일시에 한 지역에서 여러 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2) 사찰 봉쇄

의병이 주둔하였거나 도움을 준 사찰이 모두 소각된 것은 아니었다. 의병이 주둔하였더라도 소각을 면한 사찰의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강화도 傳燈寺의 『傳燈本末寺誌』에는 전등사가 일본군의 방화를 모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sup>60)</sup> 금강산 楡岾寺도 1907년 9월에 의병 700여 명이 사찰에서 11일간 머물렀는데, 고성수비대가 들어와 유점사가 의병의 소굴이라 하여 주관 금담화상을 포함하여 20여 명의 승려들을 구금하고 절을 불태우려 하였다. 이 때 주관화상의 血誠으로 다행히 병화를 면하였다고 한다.<sup>61)</sup>

문경의 大乘寺와 金龍寺도 일제의 소각을 면하였다. 대승사와 금룡사는 이강년이 주둔한 사찰이었다. 문경 출신인 이강년은 문경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 사찰에 주둔하는 일이 많았다. 1907년 9월 경북지역 의병 탄압에 나선 일본군은 9월 초부터 대승사와 금룡사에 이강년 부대로 추정되는 약 500여 명의 의병이 주둔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sup>62)</sup> 이어 14일에는 대승사 부근 적성에서 이강년 부대 500여 명과 격전을 벌였다. 전투가 끝난 후 19일에 ‘토벌대’의 대장 기쿠치(菊池)대좌는 아래의 글을 대승사와 금룡사에 교부하였다.

설명하였다. 그러나 원문에는 9월 8일(양력 10월 14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정황상 연곡사보다 먼저 소실된 것이므로 1907년 9월 8일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

60) “(1908년) 경성토벌대가 절에 와서 불을 놓으려 할 때 진해창 등 2백여 칸이 소진되고 사우와 史闕은 시주 창환·영감 두 승려의 泣淚翰施으로 겨우 면하였다.”(『전등본말사지』, 24쪽; 한국학문헌연구소, 『전등사본말사지·봉선사본말사지』, 아세아문화사, 1978).

61) 『유점사본말사지』, 11쪽.

62)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 77쪽; 김상기,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이강년 의진의 활동, 65~75쪽에는 경북지역 의병 탄압에 대해 정리되어 있다.

이 사찰은 융희 초년의 난에 적도의 소굴이 되어 소각하여야 마땅하나 너희들이 이 사찰이 한국의 명찰이고 잠시 잘못된 것이라고 하니 애석히 여겨 경계하는 뜻으로 잠시 특별히 존치한다.

명치 40년 9월

안동문경방면 대일본군지휘관 육군보병대좌 菊池主殿<sup>63)</sup>

대승사·금룡사가 의병의 근거지였다고는 하나 소각하지 않는 이유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명찰이며 승려들이 잘못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앞서 금룡사에 대한 공격명령을 내릴 때에는 의병을 공격하되 사찰의 승려들이 일본군에 저항하면 소각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소각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전달되었다.<sup>64)</sup> 이러한 명령이 전달된 것도 대승사·금룡사가 소실 피해를 면한 정황과 관련이 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해당 사찰이 소각을 면한 이유를 확인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승려들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 즉 사찰의 승려들이 의병에 협조적이었는가의 여부가 일본군의 방화 여부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승사·금룡사의 경우 승려들이 ‘잘못하였다’고 인정한 점이 반영되어 소각을 면하였으며, 유점사와 전등사도 승려들의 읍소로 소각을 면하였다. 또한 乾鳳寺의 경우에는 해당 사찰에 머물고 있던 李晦明 승려가 일본 조동종의 수계자임을 들어 방화를 면할 수 있었다.<sup>65)</sup>

반면 일본군의 방화로 소실된 사찰 중에는 일본군에 저항한 흔적이 나타나기도 한다. 문태서의 창의지로 알려진 덕유산 靈覺寺는 1907년 무렵에 소실되었다.<sup>66)</sup> 문태서 의진은 1908년 3월 14일 영각사에서 함양수비대와의 전투를 벌였으며, 문태서의 부하 중에는 영각사 승려로 추정되는 인물이 있었다.<sup>67)</sup> 이

63)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 107~108쪽.

64)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 96쪽.

65) 이희명, 『반생일기』(정광호, 『한국불교최근백년사편년』, 인학대학교출판부, 1999, 402쪽에서 재인용).

6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영각사는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덕유산에 있는 절로,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인 해인사의 말사이다.

때문에 일본군 측이 보복적 조치로 영각사를 불태웠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경의 천주사<sup>68)</sup>도 의병을 도왔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일본헌병대가 주지를 총살하고 사찰을 불태워 없앴다고 한다.<sup>69)</sup> 태백산 각화사의 경우 승려들이 의병에 합세하여 일본군과 전투했다고 하며, 의병이 퇴각한 후 일본군이 승려와 의병의 합세할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각화사에 방화했다는 기록도 확인된다.<sup>70)</sup> 즉 승려들의 태도와 의병에의 협조 여부가 사찰 소각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승려들이 일본군에 협조적이면 그대로 남겨두되, 승려들이 의병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둘째, 면소 사찰의 대부분이 寺刹令 체제 하의 본산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소실을 면한 5개 사찰 중 대승사를 제외한 4개 사찰은 1911년 「사찰령」 발표 이후 말사를 관할하는 본산이 되었다. 김통사는 경북 북부 일대의 45개 말사를 관할하였으며, 유점사는 금강산 4대 사찰 중 하나로 산내외말사 60여 개소를 관장하였다. 전등사도 경기도 6개 군 34개 사찰을 관리하는 본산이며, 건봉사도 9개 말사를 관장하면서 한국전쟁 직전 총 642칸이 이르는 강원도 최대의 사찰이었다. 물론 이것은 자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사찰령 하에서 본산의 지위를 유지하던 대찰들이 해방 이후에도 사세를 유지하면서 寺誌를 편찬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사찰들에 비해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더욱 더 많은 사찰이 의병의 주둔지로 이용되면서 일본군의 방화위협에 노출되었지만, 유독 기록을 남긴 사찰에서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찰의 규모와 영향력이 면소 여부에 기여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67)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502~503쪽. 『폭도에 관한 편찬』, 1910.2.10, 「괴수 문태서 검거계획에 관한 건」.

68) 경상북도 문경시 동로면 천주산에 있는 사찰이다.

69) 『한국사찰사전』 상, 830·880~887쪽; 문경시지편찬위원회, 『문경지』 하, 문경시, 2002, 216~217쪽; 『문경지』에는 천주사가 1906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당시 문경에서는 의병 활동이 확인되지 않으며 주변 사찰들의 피해시기도 1907년인 점을 미루어 1907년에 소실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70) <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0일자, 「지방정형」.

없다. 실제로 사찰 방화의 추이를 보면 1907년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1908년 이후의 사찰은 규모가 작은 암자가 대부분이다. 1907년 소실된 사찰 중에는 250여 칸에 달하는 심원사와 200여 칸 규모의 三和寺가 있으며, 각화사 역시 太白山史庫를 관리하는 사찰로 조선 3대 사찰로 꼽힐 정도였다. 반면 1908년 이후 소실된 사찰은 松廣寺에 부속된 산내암자인 隱寂庵과 普照庵, 대흥사 산내암자인 심적암을 비롯하여 月明庵·上耳庵 등이다. 1908년 이후 소실된 6개의 사찰 중 담양 龍興寺를 제외한 5개 사찰이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사찰이거나 암자이다.<sup>71)</sup> 즉, 1908년 봄 이후 사찰 방화가 재개되었지만, 주로 규모가 작고 궁벽한 오지에 위치한 사찰만이 대상이 되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의병이 이용한 사찰을 존치시킴으로써 얻는 전략상 효과를 기대했던 것 같다. 이는 사찰 봉쇄를 통해 나타난다. 사찰 내 식량을 몰수하거나 사찰 내에 승려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거주하지 못하도록 사찰을 비우는 ‘봉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가까스로 소실을 면한 대승사와 금룡사의 경우 일본군은 사찰을 소각하는 대신 사찰 내 식량을 모두 압수해 갔다.<sup>72)</sup> 식량을 압수하는 것은 의병이 보관해놓은 군수물품을 몰수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와 함께 사찰이 다시는 의병의 근거지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도 행해졌다. 앞서 살펴본 유점사의 경우도 가까스로 소실은 면하였지만, 일본군이 절 내의 불상과 古物, 식량 등을 산 아래로 옮겨 놓고 寺門을 봉쇄함으로써 승려들이 기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sup>73)</sup>

1907년 겨울이 되면 이러한 사찰 봉쇄는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되었다. 일본군은 겨울철에 의병들이 휴식·식량의 문제로 절에 오랫동안 주둔하는 경우가

71) 1908년에 방화 소실된 법계사는 지리산 천왕봉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사찰로 이름나있다.

72)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2, 107~112쪽. 당시 일본군이 대승사와 금룡사에서 압수한 물량은 다음과 같다.

대승사: 정미 32석, 유미 4말 5되, 소금 2말, 호마 1말

금룡사: 정미 34석 9두, 소맥 1석 2두, 맥분 약 2석, 대두 약 3두 5되, 소금 약 7석, 곤포 해태 기타 부식물 1표, 짚신 130족 등

73) 『유점사본말사지』, 11쪽.

많다고 판단하고 절 내의 식량과 승려를 산 밑으로 이동시켜 의병들이 사찰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sup>74)</sup>

하동군 上白雲寺와 下白雲寺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찰에는 1907년 11월 무렵 의병이 주둔하였는데, 정보를 접하고 출동한 일본군이 사찰 승려에 대해 곡물, 기타 취사도구를 취합하여 하산 조치를 시켰다. 그러나 이듬해 2월 광양순사주재소의 정찰 결과 이곳이 다시 의병의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50~60명의 인원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실제 의병 40여 명이 체류한 것을 확인한 일본군은 절에 올라와 있는 승려들을 산 아래 백운리에 거주하게 하고, 두 사원을 겨울철에는 생활할 수 없을 정도까지 처분하였다.<sup>75)</sup>

한편 일제는 사찰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였다. 의병이 주둔하였던 사찰 내에 고정적인 척후를 파견하거나 헌병분소를 설치함으로써 의병의 동태를 감시하고 그 근거지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병들의 활동정보를 수집하는 거점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본래 일본군은 의병이 나타났다는 정보를 들은 후에 출동하여 진압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경우 의병들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도착하게 되어 효과적으로 진압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본군은 의병이 자주 나타나는 사찰에 오랜 기간 주둔하여 의병의 동태를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sup>76)</sup> 이러한 목적에서 사찰에 헌병분건소가 설치되거나 수비대가 체류하게 되었다. 1907년 9월 이래 사문이 봉쇄된 유점사에는 1908년 봄 헌병분건소가 설치된 다음에야 승려들이 사찰로 돌아올 수 있었다.<sup>77)</sup> 지리산 大源寺에는 1908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비대가 주둔하면서 정찰·검거활동을 계속했다.<sup>78)</sup> 조계산 선암사에도 의병들이 자주 나타나자 1909

74) 1907년 12월 전라도 일대 사찰에 ‘산간 사원의 양식을 옮기라’는 명령이 하달된 것도 이러한 정황과 관련 있다;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4, 131쪽.

75) 『한국독립운동사자료』 9, 252쪽.

76) 이와 관련하여 1908년 5월에 일본군 2개 연대 1,600여 명이 추가로 한국에 들어왔고, 동년 7~9월에는 헌병보조원도 6,500명으로 증강되었다.

77) 『유점사본말사지』, 11쪽.

78)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11, 173쪽;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12, 8쪽. 실제 로 자료에는 大雲寺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앞서 지리산 내 사찰이라고 했던 정황

년 3월에 수비대를 파견하여 주둔하도록 하였고, 이들의 주둔은 동년 5월 3일 雙岩場과 大谷場에 헌병분견소가 설치될 때까지 계속되었다.<sup>79)</sup>

다만 이러한 감시·통제의 방식이 적용된 것은 주로 규모가 큰 사찰들이었다. 의병이 빈번하게 드나들던 유점사·대원사·선암사 등지에 봉쇄를 통한 감시 위주의 활동을 한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군 통제와 관리가 어려운 벽지의 암자들은 여전히 방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기에 1908년에 소실된 사찰 대부분은 규모가 작은 암자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제의 사찰 봉쇄전략은 「사찰령」의 제정에도 영향을 끼친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지 얼마 되지 않아 불교계를 통제하기 위해 1911년 6월 3일자로 「사찰령」과 「사찰령시행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으로 조선총독부는 사찰에 속한 모든 재산을 통제하는 동시에 사찰이 종교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고자 했다. 사찰령 제2조에는 사찰의 터와 가람을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전법포교·범요집행 및 승려의 거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타의 종교법안에서는 유사한 내용을 찾기 어려운 조항이다.<sup>80)</sup> 또한 각 본산별로 제정하는 본말사법에도 정치에 관한 담론을 하거나 정치단체에 가입한 승려에게는 그 자격을 박탈하고, 사찰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찰의 터와 가람을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한 사람은 법계를 낮추거나 근신처분을 내리도록 하였다.<sup>81)</sup> 이는 불교계가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사찰이 그 근거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의병전쟁기 동안 전국의 무수한 사찰이 의병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목격한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이후 사찰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통제하려고 한 것이다.

---

에 따라 산청군 大源寺의 오기인 것으로 추측된다.

79)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13, 108쪽.

80)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46~47쪽.

81) 본말사법 80·81·85조;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근대편, 이병두 역주, 해안, 2003, 294~296쪽.

#### 4. 맺음말

1907년 군대해산 이후 의병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의진이 사찰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일본군이 의병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사찰도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군은 사찰을 소각하여 의병에 도움을 준 사찰측에 보복하고 사찰이 의병의 근거지로 역할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속 승려들이 향후 의병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의병들과 사찰의 관계를 끊고 역으로 사찰을 통해 의병들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찰을 봉쇄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소각된 사찰은 전국적으로 36여 개소로 파악된다. 시기적으로는 1907년에 30개소, 1908년이 5개소, 1909년이 1개소이다. 호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사찰은 1907년 8월에서 11월 중에 소실되었는데, 이것은 일제의 의병탄압 작전 과정 중 사찰에 대한 방화가 이루어진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일제의 소각 이후 바로 복원된 사찰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찰은 복원하는데 수 십여 년의 세월이 걸렸으며, 결국 복구되지 못하여 폐찰된 경우도 많았다. 산남의진과 관련되어 소각되었던 안국사·비상사·법광사나 대흥사 심적암이 그러하며, 송광사 소속 암자인 은적암과 보조암은 그 위치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 소각은 단순히 전각의 소실에 그치지 않고, 2차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심원사에서는 일본군의 방화로 전각과 불상이 전소되었을 뿐 아니라 절에서 보관해오던 오랜 문적까지 소실되어 이후 심원사의 사폐지가 인근 유림들에게 침탈당하는 빌미가 되었다. 이 밖에도 사찰에 오래도록 내려오던 문화재들이 소실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의병이 주둔하였더라도 소각을 면한 사찰의 예도 확인된다. 이 경우 일본군은 사찰의 승려를 하산시키고 식량을 몰수하거나 사찰 경내에 일본군경을 주둔하도록 하여 의병들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봉쇄하였다. 의병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거나, 규모와 영향력이 큰 사찰의 경우 소각하지 않고 봉쇄 조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후 일제는 사찰령을 제정하여 승려와 사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였는데, 이 역시 의병과의 결탁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작용하였다. 한편 일본군의



폭압적 대응은 승려들의 태도변화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일제의 사찰 소각이나 봉쇄조치가 승려들의 두려움을 유발하여 일제에 좀 더 협조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던 승려들이 일제의 폭력적 탄압에 분개하여 의병에 투신하거나 반일적 태도를 갖게 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투고일: 8월 6일, 심사완료일: 8월 27일, 게재확정일: 9월 2일]

주제어: 후기의병, 일본군, 방화, 사찰탄압, 사찰령, 의병탄압

#### <참고문헌>

-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황성신문》, 《경북일보》  
김삼기 편역, 『한말의병자료』 IV,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3.  
『독립운동사자료집』 2·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보병 제14연대 진중일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2010.  
『종교에 관한 잡건철(1906~1909)』, 국가기록원 소장.  
『통감부문서』 4, 국사편찬위원회, 1999.  
『폭도에 관한 편책』, 1907~1910.  
『한국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한국독립운동사자료』 8~19, 국사편찬위원회, 1980~1990.
- 권대웅, 『한말·일제하의 김룡사』, 『운달산 김룡사』(문경문화연구총서 8), 2012.  
권상로, 『한국사찰사전』 상·하, 이화문화출판부, 1994.  
권영배, 『산남의진(1906~1908)의 조직과 활동』, 《역사교육논집》 16, 역사교육학회, 1991.  
김삼기,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삼기, 『14연대 진중일지를 통해 본 일본군의 의병탄압』, 《한국독립운동사연구》

- 44, 2013.
- 김순덕, 『경기지방 의병운동 연구(1904~1911)』,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 김희곤,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 문화재청·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사지총람』 상, 문화재청, 2010.
- 신용하, 『민공호의병부대의 항일무장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독립기념관, 1990.
- 이구용, 『한말의병항쟁에 대한 고찰』, 《국사관논총》 23, 국사편찬위원회 1991.
- 이능화, 『조선불교통사』(근대편), 이병두 역주, 해안, 2003.
- 정광호, 『한국불교최근백년사편년』,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 한국학문헌연구소, 『봉선사본말사지·유점사본말사지』, 아세아문화사, 1977.
- 한국학문헌연구소, 『전등사본말사지·봉선사본말사지』, 아세아문화사, 1978.
- 홍영기, 『한말 고광순의 의병활동과 지리산근거지론』, 《역사학연구》 47, 호남사학회, 2012.
-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 Japanese Army's Oppression on Buddhist Temple in the Latter Period of the Righteous Armies' Anti-Japanese Struggle

Lee, Seung-yun

After dissolution of the Joseon army by the Korean-Japanese treat of 1907, righteous army acted in earnest and often stationed in the buddhist temple. Righteous Army did many activities in temple, which were taking care of room and board, gathering information, recruitment of troop, production of weapons and etc. As a result, temple was under oppression for suppression of righteous army.

Japanese suppressed buddhist temple by incineration or blockade. Japanese temple incineration where righteous army stayed were means of retribution for monks and blocking of establishing righteous army base. As a result, 36 temples was disappeared in Korea since August 1907. Especially, 30 temples were disappeared between August and November in 1907, which comprise 83% of all disappeared temple at that time. It is presumed to be that japanese pushed forward a strong suppression because of upsurge of righteous army spirit directly after dissolution of Joseon army.

At 1907, most of damages were happened in Northern Gyeonggi-do and Gyeongsangbuk-do area, and at 1908, most of the damages were happened in Jeolla-do region. It took decades of time for recovering of temples and some temples could not be discovered forever. Also, because of incineration, korean buddhism had great cultural heritage lost.

Blockade of temple mean forfeiture of food, breaking up of monks or stationing of japanese troops. This allows that control and surveillance of temple for blocking of righteous army usage. Thoughtless incineration made negative popular opinion and was decided inefficient method for suppression of righteous army, japanese

chose incineration or blockade according to situation. At the case of temple which had big influence or potential of helping righteous army is small, blockade action was decided.

Japanese controlling of temple lead Temple Act which established at 1911. the Japanese Government - General of Korea prohibited non-religious purpose of use of temple and political activities of monk. It is considered that blocking of connection between buddhism and independence movement.

On the other hand, repressive politics of japanese could influence attitude of Buddhist monks. It is possible that monks became having a cooperative attitude for japanese because of fear. Conversely, indignation by suppression could influence that becoming righteous army or changing attitude which lukewarm to strong anti-japanese.

Keywords: righteous army in the latter period, Japanese army, arson, oppression on buddhist temple, temple act(*sachal'ryeong*), oppression on righteous army